



의안번호	제 2010 - 호
의 결 연 월 일	2010. 8. 30. (제27차 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28차 전체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회의 요지	1
가. 제3차 양형기준안 공청회의 주요 토론 쟁점에 관한 논의	1
나. ‘형량범위 내 기준점 설정방안’에 관한 검토	2
다. 기타 사항	4
II. 향후 일정	4

별첨 강영수, “양형기준안 제3차 공청회 결과”
 이주형, “제3회 공청회에서의 개선요구사항 검토”
 서봉규,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 회의자료”

I. 제28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0. 8. 23.(목) 19:20 ~ 21:4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1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김현석, 김혜정, 박영식, 범현, 서봉규, 이상원, 이주형, 정준화, 조은경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제3차 양형기준안 공청회의 주요 토론 쟁점에 관한 논의
- 형량범위 내 기준점 설정방안에 관한 논의
- 기타 논의

4. 회의 요지

가. 제3차 양형기준안 공청회의 주요 토론 쟁점에 관한 검토

- 검토방법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대상범죄별 주무 전문위원이 공청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진 사항을 수용가능한 부분,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 등으로 정리하고, 팀별회의에서 개별 쟁점별로 논의한 후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는데 의견이 모아짐

☞ 충실한 팀별회의를 위하여 운영지원단장이 전문위원들에게 공청회 토론내용에 관한 속기록 자료를 제공하기로 함

나. ‘형량범위 내 기준점 설정방안’에 관한 검토

(1) 검토방법에 관한 논의

○ 이주형, 서봉규 전문위원이 준비한 회의자료 내용에 따라 기준점 설정방안에 대하여 발표한 다음, ‘형량범위 내 기준점 설정방안’의 검토방법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

– ‘형량범위 내 기준점 설정방안’은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평가원칙을 수정하자는 제안으로서 현행 양형기준의 틀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전문위원들이 양형기준방식에 대한 연구 및 ‘기준점 설정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일회적인 논의만으로 결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2기 양형기준은 내년 4월 이후에 시행되므로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기준점 설정방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팀별회의 및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친 후에 위원회에 논의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제1기 양형위원회 당시 ‘출발점 또는 기준점 설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전문위원 또는 양형위원회 단계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없고, 제2기 양형위원회에 들어와서 정동민 위원이 기준점 설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였음에도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지 못하여 지난 양형위원회 제26차 회의시에 양형위원들에게 기준점 설정에 관한 개별적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자, 일부 위원들이 정식 의안으로 제출하

라고 권유하여 위 의안을 제출한 것인데, 기준점의 설정은 이론적인 산물이 아니라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실용적인 검토의 산물이어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비교적 적으므로 오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취합한 후 그 결과를 8. 30.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자는 의견

- 논의결과, 운영지원단장이 지금까지의 전문위원 회의록 또는 위원회 회의록에서 '기준점(또는 출발점)'에 관하여 이루어졌던 기존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전문위원들에게 제공하고, 8. 30. 양형위원회 제27차 회의 시에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팀별회의 및 전체회의를 거쳐 '형량범위 내 기준점 설정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위원회에 종합적인 보고를 하기로 결정하면 그에 따르기로 하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2) 기준점에 관한 간략한 논의

- 1/3지점 설정에 관하여
 - 형량범위 내에서 1/3지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근거 또는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어떠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설정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의견
 -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온정주의적인 양형관행이 있어 대부분 형을 낮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3지점을 출발점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방안으로 보인다는 의견
- 양형인자의 개수 비교방식에 관하여

- 영국 양형기준에 출발점은 존재하지만, 감경인자와 가중인자의 개수를 비교하여 감경영역 또는 가중영역으로 옮겨가는 형태는 영국의 양형기준방식이 아니라는 의견
- 영국에서는 출발점을 기준으로 가중요소가 많으면 더욱 가중하도록 하고 있고, 판결문 작성시 채택한 가중·감경인자를 체크하게 하는데, 이를 분석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중간점에서 위로 또는 아래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영국 양형기준이 꼭 감경인자와 가중인자의 개수를 세어서 감경영역 또는 가중영역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단은 기준점을 제시하여 가중인자와 감경인자의 개수를 비교하되, 그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유를 쓰고 이탈함으로써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

다. 기타 사항

(1) ‘공청회에서의 개선요구사항 검토’ 등 회의자료에 관한 논의

- 이주형 전문위원과 서봉규 전문위원이 회의 직전에 배포한 ‘제3차 공청회에서의 개선요구사항 검토’ 및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 회의자료’의 내용을 설명
 - ‘제3차 공청회에서의 개선요구사항 검토’의 주요 내용은 집행유예기준의 설정 필요성, 제1기 양형기준의 시행성과 분석 및 판결문에 구체적 인자 실시 필요 등임
 -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 회의자료’의 주요 내용은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의 시급성 및 전문위원단의 논의 필요, 개정 형법 시행 대비 양형기준 수정방안 필요, 법원조직법 규정 해석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입장 정리의 필요성 등임

- 위 회의자료 중 공청회의 주요 토론 쟁점에 관한 검토 부분 및 형량범위 내 기준점 설정방안에 관한 부분은 향후 팀별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함

(2) 전문위원 워크숍 일정 논의

- 워크숍의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추후 제4차 공청회 대상 양형기준초안의 검토 경과 및 소위원회의 심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일정을 정하기로 함

II.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29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27차 회의 결과 및 팀별회의 결과를 참조하여 추후 개최하기로 함